

# ‘독서삼매’에 빠진 광야의 지식인

## 6성 제롬의 초상과 책의 형상

정진국  
미술평론가



틴토레토의 <성 제롬> (빈 미술사박물관에서, 사진/정진국)

유럽의 거의 모든 미술관에서 우리는 책을 읽고 있거나 그 곁에 반드시 책이 따라 붙는 낮은 영감을 만나게 된다. 책이 넓은 추기경 모자를 쓰고 있거나 백발로 등장하기도 하는 이 노인 곁에는 또 사자가 따라 붙는다. 이 인물상은 적어도 어느 고전 미술관에서나 서너 점 이상씩 걸려 있게 마련이다.

### 책은 필수적인 소품

성자 제롬. 그의 이름이다. 빈에서나 암

스테르담에서는 히에로니무스라고 표기한다. 서구의 근대 화가들이 특히 그를 한차례 정도씩 그렸던 것은 그가 헤브라이어와 그리스의 필사본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기 때문이다. 중세의 화가들은 주로 사자를 어루만지는 그의 초인적 능력과 신비를 그리고 있지만, 그 근대 화가들은 시리아 사막에서 그가 겪었던 유혹과 시련에 초점을 맞추고는 한다.

그렇다고 별거숭이 여인들이 음탕한 춤을 추면서 그를 꼬시려했다는 장면은 그려진

적이 없다. 그런 표현은 성자의 위엄에 걸맞지 않고 불경스런 것으로 여겨졌으니까. 또 스스로 몸에 채찍질을 가했다는 전설도 영상화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가장 혹독한 유혹을 물리친 그의 인격에 대한 진정한 모독이야말로 그런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는 것이 아닐까 모르겠다.

아무튼 사자의 발에 박힌 가시를 빼내주었고, 그 사자가 도둑을 쫓았다는 일화만이 전적인 그림의 소재로 선택되고는 했다. 성령을 암시하기 위한 새, 가축이나 말 등을 제외하고는 야생 동물에 대한 섬세하며 사실적인 묘사가 아직 널리 퍼지지 않았던 시절에 화가들은 이 성자를 그리면서 아주 자연스레, 희귀한 야생 동물을 그릴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뒤러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듯이 실제로 사자를 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사자들은 나중에 낭만과 화가들의 화폭에서처럼 포효하는 것이 아니라 수줍고 다소 의인화한 모습으로 출현한다.

사막이 배경이건, 서재가 배경이건 성 제롬의 초상과 더불어 우리는 수많은 책의 형상을 마주치게 된다. 그는 무엇보다 성경을 번역하는 데에 평생을 바쳤으므로 그의 주변에는 여러 권의 책이 필수적인 소품 노릇을 한다. 보통교육이 없던 당시로서는 물론 독자는 곧 필자라고 하겠지만, 그 저자도 주로 필사본을 베껴쓰는 성직자들이거나 번역에 종사했던 지식인들이었을 것이다. 읽는 사람이 곧 쓰는 사람인 것이다. 요즘에도 글쓰는 사람이 가장 왕성하고 충실하게 읽는 독자인 것은 자연스럽게 보인다.

### 고뇌하는 지식인의 주제

성 제롬이 그림 속에 출현하기 전까지 책의 이미지란 벽화에서 혹은 템페라에서도 오직 성스런 경전으로서 성자나 사제들의 품위있는 자세를 도와주거나 그 직분을 알리는 소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전을 읽음과 동시에 다른 말로 옮겨 써야 하는 성 제롬의 행실을 실감있게 재현하기 위해서는 경전 또한 다양한 표정으로 화면의 어디엔가 자리잡지 않으면 안된다.

화가들은 흔히 상투적인 도상에 따라 두 권의 커다란 책자와 한 마리의 사자를 그려

### 성 제롬의 초상과 더불어

우리는 수많은 책의 형상과

마주치게 된다. 성경을

번역하는데 평생을 바쳤으므로

그의 주변에는 여러권의 책이

필수적인 소품 노릇을 한다.

최상의 독자인 동시에

최상의 필자인 성자의 모습에는

다양한 이미지의

책자를 그려넣었다.

넣고는 했지만, 최상의 독자인 동시에 최상의 필자이지 않으면 안될 이 성자의 면모를 놓치지 않고자 다양한 모습으로 책자들을 그려넣었다.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메시네의 작품은 책과 서가가 배경을 담당하고 그 속에 파묻혀 공부하는 사람으로 이 성자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다소 신성화되고 정형화된 것들보다는 다빈치나 로렌초 로토나 틴토레토가 그린 사막에서 햇빛은 채 고행하는 중에도 책을 끼고 있는 이 성자의 모습이 더 진지하게 다가온다. 사자를 다스린 지혜는 부차적이다. 프란체스코가 새들에게 설교하고, 파도바의 안토니오는 물고기들을 불러들였다지 않던가? 그의 지식으로서 고뇌가—다른 순교자들은 군인 출신이거나 선한 행동으로 기적을 얻은 사람들이거나 포교자들인 데 반해 그는 성자에 오른 지식인이라는 점이 주목된다—신화적인 주제로 더욱 돋보인다.

사자의 호위를 받는 가운데 광야에서 독서삼매에 빠진 영감이라. 그럴싸한 각본이다. 16세기의 화가들은 박사나 성직자로서 단아한 차림보다는 그를 광야로 불러내 고심하도록 하는 데에서 그의 이미지의 진수를 보고자 했던 모양이다.

성 제롬 이전과 이후로도 번역자 전달자로서, 또 제대로 쓰는 것이, 곧 올바르게 읽어야 하는 지식인의 운명을 전적인 주제로 다룬 작품은 드물다. 신의 말씀을 중개해야 하는 버거운 임무는 그가 그렇게 했듯

# 동화적 상상력으로 변환시킨 뛰어난 기획

## 화라 슈트라우스 지로 출판사의 《별들의 사자》

장익순 · 출판기획가

이 사막에서 돌로 가슴을 치는 3년간의 고뇌며 은둔자의 삶으로도 다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사실상 인쇄술의 발명과 책의 대량 보급 이전까지는 있지도 않았고, 독자란 단지 경전을 일방적으로 전달받기에 지나지 않았다고 해도 좋을 시절에 독자와 저자 사이의 대화라는 특이한 문제를, 즉 하나의 몸과 하나의 마음으로 두 개의 인격이 되어 고심해야 했었다.

### 독서에 대한 왕성한 집착 그려

빈의 미술사박물관에 있는 틴토레토의 그림은 독서에 대한 왕성한 집착을 보여주는 늙은 청년을 떠오르게 하고, 바티칸에 있는 다빈치의 소품은 거룩한 분위기에 싸여 있어 거리감이 느껴지지만, 내게는 루브르에 있는 로렌초 로토의 유화(1506년작)가 더 인간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다. 점점 이 쌓인 바위산을 등지고, 이는 지식인이 깊어져야 하는 등짐이다.

사자는 구석에서 이 고행자를 방해할까보아 두려운 듯이 눈치를 살피고 있다. 그가 왼손에 쥔 십자가보다 오른손에 든 돌맹이에 힘을 주고 있음이 완연하다. 그의 머리 카락은 이미 다 빠져버렸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나 싶다. 그가 돌아가서 역경 사업을 다 마쳤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늙고 지치고 거의 침통해보이기까지 한다. 풍경은 그 빛으로 미루어 황혼이거나 여명의 시간이다. 자연도 그의 투쟁을 알기는 아는 것인지 그의 주변 나뭇가지마저 앙상하게 뻗어 있다. 그의 발치에는 돈피를 입힌 책들이 놓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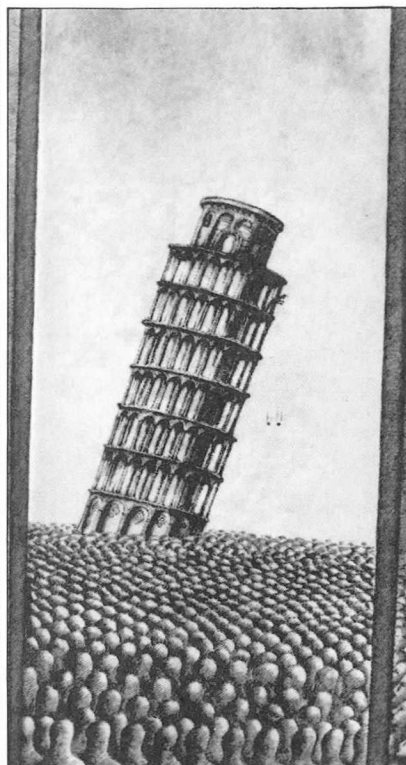
동양화의 신선도와 그 화면 구도는 엇비슷해 보이지만, 지필묵을 옆에 두고서 버드나무 아래 달관한 표정의 노인네와는 사뭇 다르다. 바로 여기, 고통과 고뇌까지도 차라리 사랑해야 한다는 신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만 같다. 득의만만한 신선 앞에서보다는 갈 길이 얼마 남지 않은 듯싶은데도 여전히 고뇌에 싸인 한 인간 앞에서 우리는 가슴을 더 줄이게 되니까. ❖

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이다. 이미 경험된 감각이나 사상이 활자나 그림·삽화들로 변환되어 마치 미지의 숲처럼 책 뚜껑 안에서 숨쉬고 있다. 우리가 책을 펼칠 때, 숨겨진 그 숲은 파랗게 살아서 우리 눈 앞에 펼쳐진다.

그 숲의 이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를 우리는 '훌륭한 작가'라 부른다. 훌륭한 작가는 '변환의 에너지를 풍부히 내장한'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자신의 경험체계와 상상력의 세계를 하나의 추진력을 가진 문화요소로 변환시켜 세상에 진수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그는 가지고 있다. 좋은 기획자는 그런 변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작가'를 알아보는 이다. 그는 분별력을 발휘하여 '훌륭한 작가'와 세상을 알맞은 코드로 연결한다.

### 꿈과 탐험의 세계

번덕스럽고도 허영심으로 가득찬 이 시대에 좋은 기획을 위한 사족을 달자면, '훌륭한 작가'와 '유명한 작가'는 아주 다른 개념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점이다. 요즘엔 작가의 내면에 있는 숲의 이미지 자체가 이미 보잘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폭기에 억지



가톨릭 세계의 위엄적인 분위기에 갇힌 갈릴레이의 내면 풍경을 잘 그리고 있다.

로 접속시켜 변환 에너지까지 인공적으로 변압시켜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옛날부터 그랬지만 이같은 '속 없는 유명브랜드'는 시간이 지나가면 금방 쓸모없는 것으로 용도폐기되어버린다. 요컨대 '유명하다' 해서 '훌륭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이다.

여기 변환 에너지가 풍부한 '훌륭한 작가'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글도 직접 쓰고, 그림도 직접 그리고, 때때로 영화제작자로도 변신하여 자신의 푸른 숲을 아름답게 펼치는 체코 프라하 사람, 페터 지스가 바로 그이다.

지금 보고 있는 작품은 그의 최신작으로,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주요 인물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가치있는 삶을 동화적인 상상력으로 뛰어나게 변환시키고 있다. 정확한 책 이름은 '별들의 사자—유명한 과학자이자 수학자이며 천문학자·철학자·물리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일생을 그린 책'이다. 어린이 출판물, 특히 어린이 그림책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망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화라 슈트라우스 지로 출판사에서 올해 출간하였다.

지스는 그의 전 작품 <꿈을 찾아서>, <황금열쇠 세계> 등에서 이미 선보였던 꿈과 탐험의 세계를 연장하여 그가 추구하는 주제에 알맞은 중세 인물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삶을 경이롭게 체험하고 있다. 책 속에서 그가 일관되게 펼쳐내는 세계는 바로

'중세시대의 세계관' 그 자체이다. 독특한 종교적 믿음과 세계관의 결과인 중세시대의 고지도나 괴기한 삽화·해도·초상화들에서 중세 이미지를 풍부히 차용한 그는, 갈릴레이의 극적인 삶을 당시의 중세 풍물 속에서 구현하여 14장면으로 압축하여 드러내고 있다. 갈릴레이의 삶과 관련하여 면밀하게 구성한 삽화들로 가득 채운 정교한 중세풍 일러스트에다 양피지에 직접 쓴 듯한 필기체 타이포, 그리고 최대한 단순화한 설명 활자들로 짜여진 지스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갈릴레이의 현실과 꿈, 강렬하게 타올랐던 한 중세인의 삶을 실감나게 경험하게 된다.

그의 작품을 들여다보고 싶다면, '훌륭한 작품'이란 어떻게 생산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자연스레 알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내면에 쌓아놓은 만큼밖에 보여줄 수 없다. 내면의 숲이 채 자라지 못하거나 황폐해지면 보여줄 게 없는 것이다. 억지로 보여주고 드러내려 할 때, 거칠고 조악한 작품이 나오게 마련이다.

### 진정한 변환에너지의 힘

진정한 변환 에너지, 창조적인 숲의 세계를 가진 '훌륭한 작가'를 알아보고 키워내는 '좋은 기획자' 또한 문화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기획 능력을 키워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출판계에 주어진 의무 가운데 하나이다. ❖